모든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귀결 짓고 둘로 보지 않아야

☞ 17면에서 계속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러 주십시오.

큰스님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전깃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 주면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밝으니깐 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마음이 같이 돼 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손으로서, 그 천백억 화신 자체의 손이 한손이 돼 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이끌어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깃줄에다가 이쪽 전깃줄을 붙여 주면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 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붙여 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 준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서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러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 의학이라야 되고, 심성 과학이라야 되고, 심성 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없다고 한 뜻은 어떠한 까닭에 없다고 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전에 나를 친견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 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되묻고 되물어서 오히려 전깃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외려 불발이 되어서 안 될 수가 있거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십중팔구는 되죠.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너는 이런 업이 있으니까 못 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 하고, 무슨 이러한 병이 있으니깐 너는 못 하고….' 이런 이유가 붙으면 그것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켜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깃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그죠? 이걸 붙일까 말까, 이거 붙일까 말까 하고 붙입니까?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붙여서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은 먹어라 이 소립니다. 변소 가고 싶으면 변소 가고. 하하하.

질문자3(남) 예. 큰스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도 없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허허허. 왜냐하면 내가 자성 부(父)와 자성 자(子)가 한데 합쳐지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지, 자기가, 즉 씨를 심어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것은 아닙니다.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나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 버리겠습니다'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이 형식적으로만 끊어 버렸지 수행해 나가는 데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하나를 끊어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점수(漸修)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 넣고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거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둘 아닌 도리를 또 두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둘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몰라. 아까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 주고 떼어 주고 대어 주고 떼어 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투는데, 즉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만약에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꺾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漸修)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둘 아니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다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하하.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자4(여) 제 동생이 병이 안 낫는데 살려 달라고 왔습니다.

큰스님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합디까? 여긴 병원이 아니니까.

질문자4(여) 뭐, 간이 좀 나쁘다 그래요. 간이 나쁘다….

큰스님 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 80%, 90%는 마음에서 병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디가 좀 아프면 그냥그냥 바깥으로 그냥 쭈르르 갑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소릴 들으면 날더러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한테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땐가 내가 얘기했죠. 이 다리가 썩어서 잘라야 할 텐데 그 마음과 마음이 전깃줄을 붙이니까 고만 이 모든 인체의 마음들이, 골수의 모든 생명 의식들이 그냥 전부 작용을 해 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깐 썩어 들어간 게 금방 내려가서 이 발목으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자를 걸 안 자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박사들도 머리를 깨우뚱거리고 종교를 뭘 믿느냐고 묻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이 관법을 알아서 모든 의식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스리면서, 그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한마음으로 귀결을 짓고 둘로 보지 않아야만이….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를,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을 수는 없죠, 이 손가락 하나가.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인체의 의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 주장자로 돼 있는데, 손가락처럼 하나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그러니깐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모든 데서 작용을 해 줘서 굳어 들어가는 데를 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무슨 병? 간암? 간암이든지 백혈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이 종류 종류가 따로 따로 있겠지만 모두 이 뼛속에서, 병이 위중하든 간단하든 이 뼛속의 골수에서만이 이 모든 작용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해 주고 바꿔 주고 이러는 데서, 그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는 데서 병이 완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들으면 '아이구! 나 죽네. 이젠 꼼짝없이,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나으니깐 이거는 꼼짝없이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의식들도 전부 작용을 하다 말고 '아이구, 꼼짝없이 죽었어!' 그러곤 안 해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 이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렇다 이거야, 전부가. '할 수 없어.' 가 아니라,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심력이라는 것은 빛보다도 더 빨리 더 귀중하게, 아까 전깃줄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주 그것이 너무 과거로부터 지은 것이 돼 놔서 참 완고한 사람이라면 어찌해 볼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을 때, 그릇에 담기질 않아. 붙여지질 않아. 전깃줄도 이렇게 이게 선을 까고 붙여야죠? 까지 않고 그냥 붙일 수가 없죠. 까지 않고 붙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까서 붙이면 아주 불이 들어오게끔 까 가지고 붙여야지 까지도 않고 어떻게 붙여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넣고
>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다 놓고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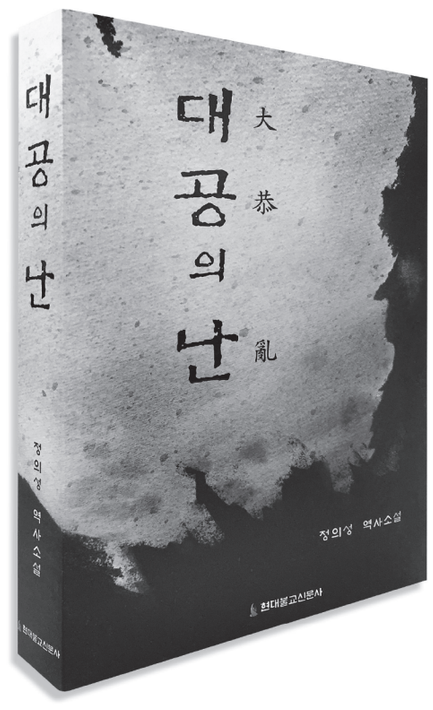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